

# 年 2조 쓰고도 사립유치원 방치? 교육청에 '집중포화'

##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

박용진 의원 "문제 확인하고 방치  
횡령죄 처벌 받도록 법 개정할 것"

교육감들 "사립유치원 감사 검토"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목소리도  
서울시교육청 종합대책 협의키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를 성토하는 여론이 관할 교육청으로 옮겨 붙었다. 유치원장들이 국고 지원비와 학부모들이 내는 교육비를 제 돈처럼 쓰는 동안 교육청은 뒷집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이에 각 교육청들은 유치원에 대한 감사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만 800여 곳에 달하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분노가 크지만 조금 있으면 이것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번질 것"이라며 "감사를 2580곳만 했

는데 91%는 문제 있는 곳이었는에도 문제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2619억원이고 사립유치원 1곳당 보조금 평균액은 4억원"이라며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횡령죄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보조금을 유치원 마음대로 썼다면 분명 횡령죄"라고 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원금 등은 횡령죄로 보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보조금은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법적 한계에 따라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을 개정해 횡령죄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은 '지원금'으로 분류된다. 연간 2조원에 달하지만 지원금은 유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될 경우 횡령죄 적용으로 처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는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과 감사 계획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수도권 교육감들은 일제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적·주기적 감사'를 검토키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 교육감이 이날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확대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교육부가 소집하는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관련 회의와 자체 관련 부서간 회의 등을 통해 감사방식과 시기 등을 본격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사립유치원이 800여곳으로 많아 자체 감사가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다"면서도 "교육지원

청과 함께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방식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규모별 사립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16일 박춘란 차관이 주재하는 시도교육감 감사관 회의에 이어 18일 유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비리 재발 방지와 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등 사립유치원 대책을 논의해 이달 중으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추가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1차 공개한 내용은 전국 유치원의 4분의 1 정도가 대상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와 추가 공개될 경우 더 많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국민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초청 특강

국민대학교는 지난 11일 교내 학술회의장에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초청해 제516회 국민대 목요특강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UN과 글로벌시대'를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강연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 중 하나는 교육이며, UN사무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상대적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세계 유수의 대학을 중심으로 양질의 교육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며 "세계 시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미래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지난 11일 국민대 학술회의장에서 'UN과 글로벌시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국민대

향적인 사고를 토대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 전 총장은 현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이사장, 보아오포럼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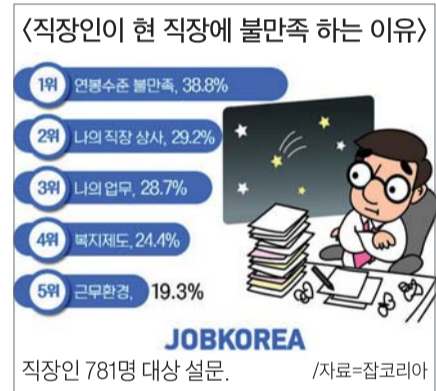
## 직장인 10명 중 8명, '사표 품고 출근'

잡코리아 직장인 781명 설문  
잠재적 이직준비 51%  
적극적 이직준비 28%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현재 다니는 직장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는 '잠재적 이직준비자도' 직장인 절반을 넘었다.

15일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781명을 대상으로 '현 직장 만족도 및 이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만족한다'는 직장인은 30.3%로 10명 중 3명에 그쳤다. 나머지 69.7%는 '불만족한다'고 했다.

현 직장에 대한 불만족은 여성 직장인



(73.3%)이 남성 직장인(65.4%)에 비해 8.0%포인트 높았다. 근무하는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 근무 직장인(72.2%)의 불만족이 높았고, 대기업 근무 직장인(59.3%), 공기업 근무 직장인(58.7%) 순이었다.

회사에 불만족하는 이유(복수응답)로

는 ▲연봉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응답률 3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상사에 대한 불만족도 29.2%로 비교적 높았다. 이외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불만족(28.7%) ▲회사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족(24.4%) ▲사무실 환경 등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19.3%) ▲기업문화에 대한 불만족(18.8%)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불만족(14.3%)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문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직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8.0%는 매일 경력직 채용공고를 찾아보고 입사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51.0%는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답해 이직 의사가 있는 직장인은 10명 중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용수 기자



(왼쪽부터) '흐르는 달' 2018년 조예령작, 2000년대 적의(재현품), '푸른산맥' 2018년 권기미작, /숙명여대 박물관

### 숙명여대 '한국 섬유예술의 정수' 중국에 소개

'심상: 한국의 색' 전시회

숙명여자대학교는 박물관이 '한국의 색'을 주제로 우리나라 섬유 예술 문화를 소개하는 '심상: 한국의 색' 전시회를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소재 주중한국문화원과 북경북장학원민족박물관에서 동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8 트래블링 코리아 아츠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국내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우수작품을 통해 한국을 알리며 전 세

계인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북경북장학원민족박물관에서 열리는 '심상: 한국의 색 - Traditional'은 인간의 심상을 비추는 색과 문양을 주제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주중한국문화원의 '심상: 한국의 색 - Contemporary'는 색으로 연계한 전통과 현대의 만남, 전통을 재해석한 현대 작가전 2가지 공간으로 기획돼 한국의 멋과 색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회에서는 숙명여대 박물관 소장품 65점과 현대작가 10인의 작품 40건 등 총 105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오뚜기

### 하반기 대졸신입 공채

오뚜기가 2018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오뚜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채용부문은 영업, 홍보영양, 생산관리, 품질관리, R&D, 마케팅, 디자인, 해외영업, 관리며, 지원대상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다. 채용인원은 총 100여 명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온라인) ▲1차 실무면접 및 심층인성검사 ▲2차 임원면접을 거쳐 2018년 12월 중 최종 입사하게 된다. 각 전형별 자세한 일정은 추후 오뚜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세종대학교 애지현교회 이요섭 목사와 한국감리교 목사 합창단,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 세종대 애지현교회 감리교 목사 합창단 초청 영어예배

세종대는 교내 애지현교회가 한국감리교 목사 합창단을 초청해 진행한 영어 예배가 지난 10일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감리교 목사 합창단은 현재 재직하거나 퇴직한 목사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영어 예배에서는 '기도의 시간', '은혜의 강가로', '사랑으로' 등 찬송가, 소프라노 황후령 교수의 독창 '나의 하나님', '고

향의 봄', 한국감리교 목사합창단의 '원해'와 '나의 찬양' 합창이 진행됐다. 이어 유창진 목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세종대 이요섭 목사는 "금년 채플에는 한국인 학생 230여명과 외국인 학생 7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